

# | 당뇨 NEWS

**1. 내장지방 정도... 제 2형 당뇨병 완치 가능성의 기늩자**  
고도비만을 동반한 제 2형 당뇨병환자에게 수술 전 내장 지방의 정도를 파악하면 당뇨병 완치 여부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란 논문이 나왔다.

지난달 20일 여의도성모병원에 따르면 송기호·김응국·김미경 교수팀의 '비만 수술 후에 당뇨병 완치의 예측인자에 관한 연구' 논문이 비만저널 'obesity' 인터넷판 7월7일자에 게재됐다.

고도비만을 동반한 제 2형 당뇨병환자 중에 루와이 위우회술 시행 후 1년 뒤에 당뇨약을 복용하지 않으면서 당화혈색소가 6.5%미만 공복혈당 126mg/dL 미만으로 정상혈당 상태에 속하는 환자를 '당뇨병 완치' 상태로 분류할 때 50명의 환자들 중 68%의 환자가 당뇨병 완치 군에 속하였으며 이들은 '당뇨병 비완치군'에 비해 수술 전에 시행한 복부 CT검사에서 피하지방 대비 내장지방이 적은 특징이 있었다.

특히 비만연구는 주로 서양인에서 많이 이루어지며, 서양의 비만수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한국인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송기호 교수팀은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고도비만을 동반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비만 수술 후에 당뇨병 완치를 예측하는 인자를 확인함으로써 향후에 국내 당뇨병-비만 수술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밝혔다.

## 2. HDL 높이는 '토세트라핀' 제 2형 당뇨병 환자 '혈당' 개선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약물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을 복용중인 당뇨병환자에서 혈당 조절을 도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시드니대학 연구팀이 '순환기학저널'에 밝힌 토세트라핀(torcetrapib) 라는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

롤을 높이는 약물의 일종인 CETP 차단제라는 약물에 대한 5년전 중단된 임상시험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연구결과 제 2형 당뇨병을 앓는 6661명이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약물과 병용 토세트라핀을 복용시 혈당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약과 스타틴을 병행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CETP 차단제 약물이 심장마비와 뇌졸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병을 앓는 사람에 있어서 혈당 조절능 역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2000만명 가량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 중 90-95%가 제 2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WHO는 추정하고 있다.

## 3. 아스피린, 당뇨병환자 심장발작 억제

고단위 아스피린이 당뇨병 환자의 심장발작 재발을 막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앨버타 대학 약학대학의 스콧 심프슨 박사는 전에 한 번 심장발작을 겪은 일이 있는 당뇨병환자는 아스피린을 최고 325mg까지 비교적 높은 단위로 복용하면 심장발작 재발 위험을 평균 23%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지난달 6일 보도했다.

낮은 단위의 아스피린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프슨 박사는 전에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겪은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21건의 임상시험 자료를 종합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당뇨병환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고 이들의 사망원인 60%를 심장병이 차지하는 만큼 고단위 아스피린이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4. "당뇨병환자, 의료과실로 추가질병 피해 잇따라"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당뇨병환자에게서 추가질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의료진과 환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의료과실로 당뇨병환자에게 질병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당뇨병은 경증질환이 아닌만큼 이로 인한 추가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예방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추가질병 발생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 2008년 18건에서 2009년 20건, 2010년 20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추세다. 올해 5월까지 총 9건이 접수됐다.

당뇨병환자에게 추가질병이 발생하기까지 안이하게 대처했던 의료진의 과실사례는 다양했다.

한 예로 환자에게 당뇨합병증인 심부전이 나타났지만 의료진은 이를 간질성폐렴으로 오진하면서 환자가 이틀만에 처치소홀로 사망한 경우가 있었다. 당뇨병과 심장병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치료를 받던 또 다른 환자는 발가락에 과사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악화되면서 발을 절단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받은 한 환자는 유리체 출혈이 있어 레이저 치료를 받았지만 망막박리가 진행됐고 유리체강 내 아바스틴 약물을 주사한 후 안내염이 발생해 실명했다.

당뇨병 치료 중 주사부위에 감염이 악화돼 오른쪽 팔을 절단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저혈당에 대한 처치지연으로 뇌손상이 발생해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소비자원이 이같은 피해구제 사건 67건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는 70대가 33%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60대, 40대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의 추가 질병은 심장병이 9건이었으며 당뇨발이 8건, 당뇨망막이 5건, 신질환 4건 순이었다.

당뇨병환자의 추가 질병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술이 27건이었으며 처치와 진단, 투약, 주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치료결과별 현황으로는 사망이 24건으로 가장 높았고 악화된 경우와 장애,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피해구제 처리결과, 배상을 해준 경우는 약 30%에 달했으며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가 22%, 조정요청이 20%, 당사자간 자체 합의 등으로 취하가 중지된 경우는 16%였다. 소비자원은 "당뇨병의 위험도가 심장질환 병력환자와 동일한 만큼 경증질환이 아니므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당뇨병이 만성합병증으로 진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발관리와 치아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당뇨병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때는 의사에게 본인의 기왕병과 복용하고 있는 약물을 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5. 당뇨병 사전 예방, 경제적 이익과 삶의 질 높여

일본 초쿠바대 연구진이 당뇨병 발병 유무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가운데, 성인당뇨병의 사전 예방이 경제적 이익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미시간대학 윌리엄 허먼박사가 주도하는 연구진은 샌디에이고에서 열리고 있는 미국당뇨병학회 연례총회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당뇨병 발병 고위험군 3000명을 대상으로 메트포민 치료군과 위약 치료군, 생활스타일 조정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조사했다.

생활스타일 조정 그룹은 식사나 운동 그리고 행동조절 등이 포함된 트레이닝을 받았으며 메트포민 그룹은 850mg의 약을 하루 두 번 복용했고 위약 그룹역시 위약을 하루 두 번 복용했다.

연구진은 10년간 추적조사 결과, 생활조정그룹은 당뇨병 비율이 34% 감소했으며 메트포민 그룹은 18% 감소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또 여러 요인을 감안했을 때 생활조정그룹은 10년간 2600달러, 메트포민 복용그룹은 1500달러의 의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